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戰)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오늘은 서리집사 및 교구일꾼 임명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출발한 1995년도 이제 한달 남짓 남았다.

12월 한 달 동안은 올해의 일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신앙적으로 좀더 성숙하기 위한 1996년을 위한 계획 수립과 각 부서의 일꾼들을 임명하는 일이 계속된다.

■ 오늘 서리집사, 교구 일꾼 임명

오늘 I, II, III부 예배 시에는 1996년도 서리집사를 임명한다. 당회의 서리집사 추천서에 동의하고 지난 11월에 면접과 교육을 마친 신입 서리집사를 포함하여 오늘 임직을 받는 1996년도 서리집사는 남 288명, 여 468명으로 총 756명이다.

또한 오늘 I, II, III부 예배 시에는 각 12개 교구의 교구장, 98명의 지역장과 215명의 남·여 다락방장, 83명의 권찰 등 각 교구의 일꾼 임명식도 갖는다.

오늘의 교구 일꾼 임명에 이어 오는 10일(주일) I, II, II부 예배 시에는 가브리엘·할렐루야·임마누엘 찬양대원이, 찬양예배 시에는 베들레헴 찬양대원이 각각 임명을 받으며, 20일(수)에는 수요예배를 담당하는 호산나 찬양대원과 시은 찬양대원 임명식이 있다.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은 17일(주일)에 가진다.

■ 오늘 III부 예배 후 교구총회

오늘 임명된 교구 일꾼들은 III부 예배 후 1층 예배실에서 총회를 가진다. 전체 교구 총회를 마친 후에는 교구별로 소회를 열어 담당 교역자와 인사를 나누고 내년도 교구 행정과 교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일들을 토의하게 된다.

각 부서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적으로도 '95년을 마무리하고' '96년도의 계획을 세우는 일로 분주해지는 12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

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신 잠언 말씀에 새겨복직하다.

일꾼 임명식

- 서리집사 및 교구일꾼 임명식: 3일(주일)
- 찬양대원 임명식: 10일(주일), 13일(수)
-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 17일(주일)

1996년도 교구일꾼

· 교구위원회 지도 / 임진태 목사 · 교구위원장 / 김광신 장로

교구	지도	교구장	다락방
1교구	박귀환 목사	이승선 장로	논현, 신사, 청담, 압구정, 삼성
2교구	박귀환 목사	오정수 장로	역삼, 개나리아파트, 영동아파트, 성보아파트
3교구	최병호 목사	정병무 장로	대치, 도곡, 개포, 일원, 수서, 자곡, 내곡, 세곡
4교구	최병호 목사	김태기 장로	반포, 잠원, 서초, 방배, 양재
5교구	원 호 목사	홍정호 장로	과천, 안양, 의왕, 평촌, 남현, 사당, 흑석, 봉천, 상도, 신림, 군포, 수원
6교구	원 호 목사	김광신 장로	영등포, 양천, 강서, 구로, 광명, 부천, 인천
7교구	임진태 목사	김대호 장로	용산, 중구, 종로, 마포, 서대문, 일산, 고양, 은평
8교구	임진태 목사	나희주 장로	삼선, 안암, 미아, 수유, 우이, 쌍문, 월계, 상계
9교구	임진태 목사	윤봉준 장로	중곡, 구의, 자양, 성수, 홍마, 금호, 동대문, 중랑, 남양주, 미금
10교구	김명현 목사	노문환 장로	둔촌, 길동, 명일
11교구	김명현 목사	박철환 장로	신풍, 잠실, 송파, 휘밀리, 가락, 문정, 오금, 올림픽, 방이
12교구	김명현 목사	최종시 장로	성남, 분당, 수지

권사회 회장에 방계운 권사

지난 1일 권사회 정기 총회 개최



권사회는 12월 1일(금) 정기 총회를 열고 한 해동안 수고한 임원진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업보고와 결산 보고를 하는 순서를 가졌다. 한편 1996년도에 수고할 권사회 회장에 방계운 권사, 부회장에 김동호·유복달 권사가 임명되었다. 총무, 회계, 서기 및 각부 부장 등 임원진은 회장단에 의해 지명 임명될 예정이다. 이옥녀, 이신일, 장애희, 최난수, 양숙란 권사 등 중경회장단은 자동적으로 권사회 고문이 되며 성례부에서 봉사하게 된다.

이 날 당회장 이종윤 목사는 목회자신학 세미나가 열릴 때마다 기도와 사랑의 헌신을 한 권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1996년도 순결 서약식

다음 주일까지 신청서 제출

1996년 1월 1일 찬양예배 시에 13세 이상의 미혼자를 대상으로 순결 서약식을 갖는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결혼 전 순결을 서약하는 이 행사는 올해 첫 주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우리 교회가 주관하여 322명이 순결서약식에 참가하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실시되고 있다.

서약식에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교회학교의 담임 교사나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순결서약집을 받고, 다음 주일(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순결서약식에 참가한 이들이 서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주위의 지속적인 격려와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다. 이 서약식에서는 기도하며 격려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자신의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금지환을 선물하므로 신청서에는 반드시 반지의 크기를 기입해야 한다.

창세기 강해



야곱의 황혼기

(35장 1 - 29절)

이종운 목사

청년에게는 믿음이 있고 늙은이는 의심을 합니다. 청년은 즐거워하나 늙은이는 두려워하고, 청년에게는 무한한 희망이 있으나 늙은이는 자포자기 합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한 편을 살펴봅시다.

"나와 함께 늙어가자
최상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생의 마지막은
가장 먼저 만들어졌었다"

(Grow old along with me
The best is yet to be,
The last of life for which
the first was made.)

무언가 공허한 노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황혼기를 축복하시지 않으신다면 이루지 못한 것들을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황혼기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영생의 찬란한 빛을 보는 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마지막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고난으로 가득 찬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베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온 것입니다. 미움과 공포와 속임수로 가득 차 있던 34장의 야곱과는 대조적으로 35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늙어서 육신은 쇠잔해졌지만 영적으로는 그의 생애중 최고에 이른 시기입니다.

1.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복을 기억함

그가 아직 세상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는 라반 때문에 뒤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제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형편도 못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엘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엘에서의 경험은 환도뼈가 부러진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베엘에서 그에게 사다리 환상을 보여 주신 하나님께 그는 서원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늙은 야곱은 그 베엘에서 그때의 환상과 서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 하나 이루어졌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뿔이 이루어졌나이다"(10절).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는 선하시어 풍성하게 채워 주셨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세어 봅시다. 당시에는 알 수 없었으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셨나이다"(시13:6)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 헌신함

야곱의 황혼기에 나타나는 두번째 특성은 자신과 가족의 성결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헌신입니다. 야곱은 '지금이 곧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때' 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방 신앙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할 것과 의복을 바꿀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베엘(하나님의 집)을 엘 베엘(하나님 집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7절). 베엘에 대해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은 장소를 강조하기보다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의 초점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일, 사람, 장소, 사건을 중요시 합니다. 그러나 늙게 되면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새로운 관계를 세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부르실 것과 능성한 하나님이심,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과 땅을 주리라는 약속과 축복을 주십니다.

늙은이에게 '생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육함이 나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국민과 왕들의 조상이 되고 그의 후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얻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매우 인격적이고 사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이 기록된 것은 창세기에서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요셉에게도 꿈에만 계시하셨습니다. 족장시대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 계시의 방법을 달리

하셨습니다.

4. 죽음에 대한 슬픔과 영생에 대한 기쁨

야곱의 황혼기는 생과 사의 변혁기입니다. 세 명의 죽음, 즉 그의 어머니가 시집을 때 함께 온 유모 리브가의 죽음(8절), 그가 일평생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17절), 아버지 이삭의 죽음(29절)을 맞습니다.

라헬이 죽었을 때 야곱은 생애 중 가장 슬픈 시간을 맞지만 베나민이 출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슬픈 일 중 하나는 핵가족화로 인해 늙은이의 지혜와 규범이 전수되는 일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신앙유산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현실적인 비극보다 커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자손들에게 실패의 씨만 뿌렸습니까. 그러나 그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의 후기 인생을 젊은 날보다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살이 되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황혼기에 자손에게 물려줄 축복의 자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 순례자 컬럼 ✦

"이제는 밝히고 고쳐야 한다"

우리는 지금, 발전을 위한 고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멸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강의 기적은 종이 호랑이가 되었다고 우리의 현실을 냉소하며 민족적 자존심까지 상하게 하는 말들이 해외 토픽 뉴스로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대로 좌초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냐의 기로에 서있다.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토록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지, 우리 모두를 파멸의 늪지대로 몰고 갔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하여 썩은 것은 도려내고 구부러진 것은 바로 하여 역사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영원한 진리 위에 나라도, 사회도, 가정도 세워야 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
기도,
감사!**
1995년 11월 26일



▲ 감사와 감격의 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 교회 앞마당에서는 기쁨의 떡잔치도 기억하며, 그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우리가 공연한 성극 '포도원의 농부'는 교만에 빠진 농부들이 농사가 잘된 것이 자기들의 힘인줄 알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죄를 지어 경찰서에 끌려가는 내용이다. 나는 이 연극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이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 이 보 배(유년부 추수감사절 성극 공연을 마치고)

처음 시작할 때 구성원이 네 명이었던 것, 장소나 기타 여건상 해체 위기에까지 처했던 일 등. 청년부가 걸어온 뒷이야기를 들으며 "오늘의 청년부가 청년부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매주 청년부 집회 때마다 "청년들의 힘이 너무 미약한 것 아닌가, '예수 사람, 예수 바람' 이라고 멋진 표어는 정했는데 이에 걸맞게 무슨 일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들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 행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요6:29).
홍영조 ('예수 사람, 예수 바람' 청년부 Home Coming Day 행사를 마치고)▶



▲ 가브리엘 찬양대원들과 온 회중이 하나되어 드린 찬양예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호흡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예배 시에는 설립기념일 50일전부터 행진해 온 '95 비전 2000운동'의 승전보고도 있었다. 전 교인이 기도와 전도생활에 새로운 도전과 격려를 받은 이번 기간중에는 교회부지를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로 기도의 열기가 더해 갔었다. (사진은 '비전 2000운동' 기간 중 전교인 합심기도회 광경)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셔서 삶의 목적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하신 것,
좋은 부모님 허락하신 것,
좋지 못한 친구들과 멀어지고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된 것,
원하던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좋은 담임 선생님들을 만난 것,
그리고 그분들의 격려와 칭찬 속에서
학교 생활이 즐거웠던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좋은 본을 따르게 하신 것,
봉사할 자리가 있는 것, 봉사하며 대인관계가 좋아진 것,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 조언을 듣게 하신 것,
주일성수할 수 있도록 믿음과 여건 허락하여 주신 것,
찬양의 은혜 주시고, 최선을 다할 마음을 3년간 유지하게 하신 것,
건강의 가시로 기도 게을리 하는 빈틈 허락치 않으신 것,
임시 전날까지 침착한 마음 주셔서
최상의 기본으로 공부한 만큼 실력을 발휘하게 하신 것,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얻을 결과에 만족케 하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엄마와 이모의 대수술이 세 차례나 있었던 것,
힘든 일로 고생하시던 아빠에게 새 일을 허락하신 것,
우리 가족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신앙에 성장이 있게 하신 것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어젯밤 공부 게을리 한 것을 후회하면서
학생답게 공부에 좀더 충실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지금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즐거워할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을 감사드립니다.
허 환 (고등부 분반공부 시간에 적어본 감사의 조건들)

■ 소식

당회원 매주일 경건회 갖기로

당회원들은 주일을 더욱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매주일 오전 8시 20분 경건회를 갖기로 하였다. 이 경건회에서는 기도회를 가진 후 주일 예배와 제반 행사를 더욱 경건하고 효과있게 진행하기 위한 회의도 할 예정이다.

1996년도 교회요람제작

1996년도 교회요람을 새로 제작한다. 제작은 교구담당 교역자에게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뒷면에 이름 기입)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 직업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교구담당 교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2월 학습·세례식

1995년도 마지막 학습·세례식을 오는 20일(수) I, II부 예배 시에 거행한다. 이를 위한 교육은 18일(월) 오후 7시 30분에 2층 예배실에서, 문답은 19일(화) 오후 7시 30분에 4층에서 갖는다. 문의는 새가족부로 하면 된다.

교사추가 모집

교육위원회에서는 1996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한다. 자격은 본 교회 성도로서 수세 후 2년이 경과하고 교구 담당 교역자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문의는 교역자실로 하면 된다.

■ 목회자·교우 동정 ■

- * 이종윤 목사는 오는 7일(목) 서울신문사 기독교 신우회 예배에서 설교하며, 오후에는 한성 CBMC 창립예배에서 설교한다.
- 또한 8일(금)에는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 월례 모임을 인도한다.
- * 이만열 전도사(청년부 지도)는 지난달 28일(화) 대한성서공회 100주년 기념 만찬석에서 성서공회 100년사 편찬 유공자로 표창을 받았다.
- * 이영조 집사(3교구, 고등부 교사)는 쌍용양행 동해지부 부공장으로 승진되었다.
- * 조웅식 집사(4교구)는 토지개발 공사 춘천 강원 지사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본사로 전보되었다.
- * 이명아 집사(7교구, 예배 위원)는 지난달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공동에 위치한 <갤러리 2000>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 * 송석인 집사(5교구)는 오는 5일(화) 그린백화점 사무실을 압구정동으로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드린다.

★ 대강절 단상 ①

어디서 주님을 만나빌까?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기쁨이요 영광이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의 방법은 늘 특이하다.

그분이 처음 이 땅에 찾아오실 때에는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감추시고 마굿간에서 태어나셨고, 세리와 죄인과 병자들 속에서 그들과 어울려 사셨으며, 가장 수치스럽게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날 우리와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밝히신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25:34 - 40).

복받을 의인들은 부지 중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이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지, 성탄의 평화를 어떻게 이 땅에 실현할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해 볼 때이다.

★ 대강절이란?

대강절이란 교회력(敎會曆) 상으로 성탄절을 앞둔 네 주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의미상으로는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 the Great Day)을 대망하는 절기이다. 우리는 이 기간동안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이를 축하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이를 준비하는 절기로 삼는다. 즉 대강절이란 이미 도래한 주의 날을 기리고 잠차 다가올 주의 날을 바라며 준비하는 절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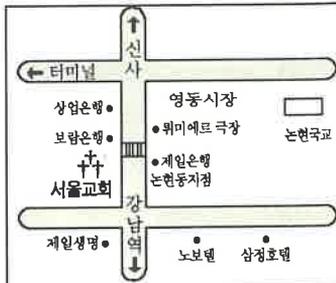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교회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임명받는 일꾼들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도록
2. 말구유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계절 되도록
3. 연말 연시 행사들이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센터가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5. 국가적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